

목 축이는 오리



충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낮 최고기온이 35℃를 넘나드는 등을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인 8월 8일 청원군 북이면의 한 축사에서 오리들이 목을 축이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1주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충청투데이 장수영 기자 2013. 08. 09

이종윤 청원군수, 오리농가 방문 폭염피해 예방 당부



이종윤 충북 청원군수는 8월 8일 북이면 화상리 박노정 씨의 오리농가를 방문해 가축 폭염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충청투데이 2013. 08. 09

찬 성질 지닌 보양식 오리고기가 ‘딱’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심신이 괴롭다. 그칠 줄 모르고 흘러내리는 땀에 허약해진 원기를 보충할 보양식이 필요하다. 근래에 오리고기가 건강식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즐기고 있다. 다른 육류와 달리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오리고기는 여름철 웰빙에 딱 들어맞는 음식이다. 동의보감에는 오리에 대해 ‘성질이 냉하고 맛이 달다. 허한 것을 보하고 열을 없애며, 장부를 조화롭게 하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한다’고 전한다.

다른 육류와 달리 찬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양파, 마늘, 부추 등 따뜻한 성질의 야채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다. 황기와 엄나무를 삶은 물에 오리와 밤, 대추, 인삼 등 각종 재료를 넣고 푹 끓여내면 보약이 따로 없다. 오리백숙은 닭백숙보다 쫄깃한 식감과 진득한 국물 맛을 지닌 명품 음식이다. 복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이유다. 오리백숙이야말로 ‘이 열치열’인 셈이다. 한 그릇 비우고 나면 몸이 개운해진다.

한국경제 칼럼 김남선 <영동한의원 원장> 2013. 08. 09

“가마솥 폭염에” 전남 닭·오리 폐사 잇따라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잇따르면서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삼복더위 특수를 맞은 농가들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8월 12일 전남도에 따르

면 입추인 지난 8월 7일을 기점으로 낮 최고기온이 연일 35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맹위를 떨치면서 최근 1주일 새 도내에서만 7개 농가에서 1만4793마리의 닭·오리가 폐사했다. 지역별로는 강진이 3곳으로 가장 많고, 나주·해남·함평·장성이 각 1곳씩이다.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의 한 농가에서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7200마리의 닭이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집단 폐사했고, 강진 신전면 한 오리농장에서도 같은 기간 1400마리의 오리가 죽어나갔다. 또 나주시 봉황면 김모(68)의 농장에서는 8월 5일 닭 700마리가 폐사한 데 이어 8월 6일에도 또 다시 닭 3000마리가 폐사 처분됐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난 8월 8일 함평군 손불면의 한 농가에서도 닭 500여 마리가 한꺼번에 죽었다.

김씨는 “삼계탕용은 700g이 적당한데 남은 닭은 상당수가 1kg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지금 출하되지 않으면 무더위에 죽은 닭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전남도는 폭염 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축사 천장에 단열재를 부착하고 ▲환기와 송풍에 각별히 신경 쓰고 ▲사육 밀도를 낮추고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 복사열을 줄이고 ▲폐사 후 신속한 처리로 질병을 막고 ▲과열에 따른 화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난해 폭염으로 91농가에서 닭 45만 마리를 비롯, 오리 1만9000마리, 돼지 124마리, 소 7마리, 염소 3마리 모두 47만여 마리가 폐사한 바 있다.

뉴시스 송창현 기자 2013. 08. 12

하귀농협, 노인정에 오리죽 등 건강음식 제공

제주 하귀농협(조합장 김창택)과 하귀농협 고향주부모임(회장 고옥자)은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삼복 기간인 한 달여 동안 관내 12개 노인정을 방문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길 기원하며 오리죽 등 건강음식을 제공했다.

시사제주 고영태 기자 2013. 08. 14

“H7N9 조류인플루엔자, 인간 대변 통해 전파 가능성”

중국에서 출현한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사람의 대변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콩대 연구진은 중국 항저우(杭州)에 있는 저장(浙江)대 부속 제1의원과 공동으로 AI 감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망자 6명 중 4명의 대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 4월 10~20일 이 병원 중환자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사망한 6명의 대변을 사후(死後) 분석한 결과 4명의 대변 표본에서 AI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일반적인 독감 환자나 H5N1형 AI 환자의 대변에서 바이러스 양성 반응은 5~33% 정도로 나타난다면서 이번에 67%의 표본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사망자들의 혈액이나 소변, 간과 심장, 신장, 폐, 골수 등 다른 세포

표본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8월 13일 의학전문지 ‘임상전염병’ (Clinical Infectious Diseases)에 실렸다. 袁國勇 홍콩대 미생물학 교수는 8월 15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모닝포스트에 이론상으로는 2003년 홍콩에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하수관을 타고 전파됐던 것처럼 AI 바이러스도 전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3년 홍콩의 한 주택 단지에서는 하수관을 타고 온 바이러스가 변기 물을 내릴 때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329명이 사스에 걸렸고 이 중 42명이 숨진 사례가 있었다. H7N9형 AI는 지난 3월 중국 동부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135명이 감염되고 이 중 45명이 숨졌다. 여름에 접어들면서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최근 다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은 가을과 겨울에 AI가 다시 대거 퍼질 수 있다고 보고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연합뉴스 황희경 특파원 2013. 08. 15

축산물 원산지 위반 여전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7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 등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소 18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역은 돼지고기가 99개소로 가장 많고, 쇠고기 63개소, 닭고기 14개소, 식육가공품 등 6개소, 오리고기 1개소 순이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된 183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57개소

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2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피서객이 집중되는 전국의 주요 관광지·해수욕장·등산로 주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 간 가격차가 커서 원산지표시 위반이 빈번한 삼겹살 등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이들 위반 업소들은 조리된 식재료의 원산지는 소비자가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외국산을 몰래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주요 유형을 보면 국내산에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외국산끼리 혼합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경기도 소재 한 영농조합법인은 국내산 삼겹살 22톤에 미국·칠레산 삼겹살 23톤을 교묘하게 혼합(6억원 상당)하여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되어 수사 중에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사이버 단속반을 활성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경제 한정희 기자 2013. 08. 16

신종·변종 바이러스 급증에도 보건당국 대처 허술

[앵커] 신종·변종 바이러스가 대거 출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종 AI’와 ‘진드기 바이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까지 가세했는데요. 그런데도 보건당국은 전 세계 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중국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에서 시작된 신종 조류독감바이러스. 곧 베이징과 허난성으로 북상했고 최근에는 광둥성에서도 감염 사실이 확인돼 한풀 꺾였던 신종 AI에 대해 중국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130여명의 신종 AI 환자가 발생해 45명이 사망했고 중국당국은 가을철 신종 AI 발생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발병지역에서 출발한 탑승객을 위주로 발열 증세가 있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 이후 야생진드기가 유행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인 SFTS 감염이 확인됐고 이번달 수도권에서 첫 사망 환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SFTS 감염 확진은 모두 22건, 이중 50%인 11명은 숨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SFTS의 치사율은 6%라면서 면역력이 강하면 위험하지 않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지만 환자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재갑 /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SFTS(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의 경우 중국에서 이미 2~3년 전부터 유행했는데 국내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처에 대한 비난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SFTS를 제4군 법정감염병에 별도로 지정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심환자와 접촉한 한국인 근로자 19

명이 귀국하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사스,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과 유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돼 90명 가까이 감염됐고 이중 절반 정도가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 기후 등으로 신종·변종 바이러스가 대거 출현하고 있으며 나라간 이동인구가 커져 전파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전세계 전염병에 대한 모니터와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재갑 /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미국 등 선진국은) 전세계에 있는 어떤 유행이라도 감시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처럼 우리나라 안에서 생긴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자] 제약사가 수익이 나지 않다는 이유로 예방백신에 투자하지 않는 만큼 보건당국이 나서 백신 개발을 우선순위에 두고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뉴스Y 김지수입니다.

뉴스Y 김지수 기자 2013. 08. 19

‘최악 폭염’에 가축 118만 마리 폐사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올여름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가 118만 마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지난 8월 16일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118만 2천476마리로 집계

됐습니다. NH농협손보에 따르면 피해 농가에 보상해야 할 금액은 35억여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폭염의 최대 피해 가축은 '닭'으로 나타났으며, 오리, 돼지, 소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도별로는 전북과 전남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뉴스Y 2013. 08. 19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환풍 및 환기 실시, 적정 사육밀도 유지, 단열재 설치, 깨끗한 물 공급 등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시 시군 행정기관, 지역축협 등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2013. 08. 19

“폭염피해 국고지원 기준 완화를”

전남도가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피해 복구비 국고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한달간 폭염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집계한 결과 도내에서 가축 7만5천마리(닭 6만6천마리, 오리 9천마리, 돼지 65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폭염피해가 발생한 축산농가는 가축 재해보험(폭염특약 가입)에 가입한 경우 보험에서 피해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농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조사를 거쳐 입식비 등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폭염을 비롯한 태풍, 호우 등 일반적인 재해는 가축뿐만 아니라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의 복합재해를 합산해 시군당 3억원 이상 피해 시에만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 이 기준 대로라면 시군당 닭(30일령 기준) 15만마리 이상 폐사시 지원이 가능해 현실적으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국고 지원 기준을 시군당 피해액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긴급 건의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폭염이

친환경 인증제

“소비·생산자 혼란 없도록 단순화를”

축산물 친환경 관련 인증이 너무 많아 오히려 친환경 축산 활성화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인증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축산물 친환경 관련 인증에는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축산물HACCP 등이 있다. 이에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혼란이 없고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각 인증별 공통요소를 분류한 후 유사인증 통합 등 인증제의 단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문이다. 여기에 일반 축산물과 친환경 축산물간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 농가가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친환경 축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 및 소비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따라서 친환경축산물이 일반축산물과 구분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전문 유통·판매점 확대, 농협 역할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교육, 홍보 등 소비자에 대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 소비자가 믿고 사먹을 수 있는

체계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2013. 08. 19

동물복지 확대 따른 관리기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12일 동물운송 규정의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뿐만 아니라 동물판매업 시설기준 세분화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동물운송 규정의 적용대상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등록대상 축산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로 구체화 했다. 또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물보호센터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지정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향상토록 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의 확대 시행에 따라 동물의 입식·운송·도축, 인증 표시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일반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의 입식기준을 축종별로 규정하고, 운송·도축 시에도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소비자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문구의 사용을 제한했다. 인증 축종 확대에 따라 인증기준을 보완하고 유사표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토록 했다.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전자결제 외에 현금 및 계좌이체를 추가했다.

동물판매업의 시설기준 일부가 햄스터 등 소동물에 부적합하여 동물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소동물 판매업의 경우, 급·배수 시설 및 격리실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동물판매업 관련 규제를 동물의 특성에 맞게 합리화하여 동물판매업 등록률을 제고토록 했다. 동물장묘업의 영업범위가 세분화됨에 따라 등록증에 장례식장·동물화장시설·동물건조장시설·납골시설의 설치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2013. 08. 19

경기도, 추석 앞두고 축산물 집중 검사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가 추석을 앞두고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열흘간 축산물 가공·판매업소와 도축장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한다. 연구소는 도축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추석 전날까지 축산물수급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축장 작업시간을 기존보다 3시간 연장한다. 또 불량 축산물 유통을 막고자 도축장별 3~4명씩 나가 있는 축산물검사관을 1명씩 추가로 배치하고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한다. 연구소는 10개 반 20명으로 특별수거반을 편성, 도내 31개 시·군의 축산물 가공장, 백화점, 대형 유통매장 등 220개 업

체를 돌며 무작위 검사를 할 계획이다. 또 수입소고 기와 육우가 한우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식육판매업소를 돌며 유전자 검사장비로 한우유전자 검사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2013. 08. 20

식품·축산물 검사규정 어긋 검사기관 8곳 적발

식품과 축산물 검사과정에서 정해진 검사방법과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대조시험을 빼먹은 검사기관 8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축산물 등의 위생과 품질을 검사하는 시험·검사기관 39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규정을 위반한 기관 8곳을 확인했다고 8월 2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식약처의 지정 시험·검사기관 125곳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이 높은 곳으로, 업종별로는 식품위생검사기관 22곳, 축산물위생검사기관 10곳, 의약품 품질검사기관 4곳,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3곳이었다. 이 가운데 대조를 위해 시료를 넣지 않고 진행하는 ‘공시험(Blank Test)’을 하지 않거나 규정 검사방법을 지키지 않은 식품위생검사기관 2곳, 부적합 검사결과를 늦게 통보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 1곳 등 총 3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검사기간을 지키지 않은 기관 등 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검사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국내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식품, 의약품, 축산물

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2013. 08. 20

NS홈쇼핑, ‘우리축산물요리경연축제’ 요리책 1만 부 무료 배포

NS홈쇼핑은 8월 20일 국내 최대 요리 경연인 ‘우리축산물 요리경연축제’에서 6년간 수상했던 요리 레시피들을 모아 요리책을 만들고 책 1만부를 수상자 및 축산물관련단체협의회, 관계사 등에 무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요리책에는 지난 4월 실시한 ‘제6회 우리축산물 요리경연축제’에서 국내 축산물만을 활용해 만든 대회 수상작을 비롯해 지난 6년간의 수상작 레시피 38개를 소개하고 있다. 총 60페이지로 구성됐으며 재료 계량법, 신선한 우리축산물 선별법, 부위별 이용법, 재료 손질법 등 전문가가 전하는 요리 팁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 컬러판 제작에 음식마다 과정 및 완성 사진과 만드는 법, 영양성분 등 자세한 정보를 추가해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이번 책은 고객과 축단협, 관계사에 무료 배포되었으며 9월에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SNS이벤트를 통해 추가 배포될 예정이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사료값 상승과 축산물 매출 감소, 불벌더위로 어려움이 많은 우리 축산 농가를 응원하고 우리축산물의 활용법을 널리 알리고자 요리책을 발간하게 됐다”며 “몸에 좋은 우리 축산물로 만든 다양한 요리활용법을 통해 대한민국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2013. 08. 20

부여군, 축산업 허가제 시행

부여군이 지난 2011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을 계기로 '축산법'을 개정하고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축산법 개정으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 23일부터 허가대상이 되며,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도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 축산업으로 등록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초과)이상 가축사육업은 올 2월 23일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또 2월 23일 이후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축산업을 친환경적이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청일보 김남현 기자 2013. 08. 20

오장육부 편하게 하는 오리고기

소고기는 거저 주면 먹고, 돼지고기는 돈 주고 사 먹고, 오리고기는 남의 입에 들어간 것도 뺏어 먹으

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오리고기가 몸에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얘기다. 오리의 효능은 예로부터 공인돼온 사실이다.

동의보감에도 오리가 신장, 순환계, 호흡기계, 소화계 모두에 좋기 때문에 '오장육부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다'고 기록돼 있다. 여름휴가를 다녀온 후 겪는 수면장애와 피로감 등의 '바캉스 후유증'에 좋은 '보양식'으로 오리고기를 추천하는 것도 몸에 유익한 성분을 그처럼 두루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아미노산 얘기부터 해보자. 오리고기는 8종의 필수 아미노산(이소류신, 류신, 라이신,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오리고기 섭취는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균형이 깨진 생체리듬을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아미노산 가운데 트레오닌은 간의 지방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과음, 폭식 등으로 손상당한 간의 기능 회복에 좋고,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수면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신해 휴가기간 중 불규칙한 수면으로 인해 야기된 불면증을 해결해준다. 이와 함께 '천연 비아그라'로 통하는 아르기닌은 성장호르몬 분비를 도와 활력을 더해준다.

필수아미노산은 아니지만 오리에 풍부한 티로신 역시 바캉스 후유증 개선에 유익한 성분이다. 신경전달물질로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티로신은 여러 임상연구를 통해서 피로나, 우울증, 초조감 등을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성분이 프롤린이다. 이 성분은 육류 중에서도 특히 오리에 많은 성분으로 콜라겐 합성 재료다. 오리고기가 피부에 좋다는 것도 이 성분 때문에 나온 얘기다.

불포화지방산도 오리 애기를 하면서 빼놓아서는 안 될 성분이다. 오리고기에는 다른 육류에 비해 지방이 더 많이 들어 있다. 그러나 올레산, 리놀렌산 등 불포화지방산이 지방산 구성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고혈압, 동맥경화 등 생활습관병(성인병) 예방을 돕는다.

불포화지방산은 혈액에 쌓여 동맥경화, 고지혈증, 뇌졸중 등 순환계 질환을 유발하는 포화지방산과는 달리 혈액 내 쌓여 있는 노폐물과 함께 배출되는 특성을 지녔다.

몇 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트랜스 지방의 경우 오리고기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오리의 지방은 껍질 부위에 집중돼 있으므로 포화지방 섭취가 염려되는 경우 껍질을 제거하고 먹으면 된다.

또 오리고기는 각종 비타민과 칼륨, 인,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철, 아연 등 무기질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비타민 중에는 특히 A와 B군이 풍부한데 비타민 A는 외부의 세균 및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자가면역체계를 강화시켜주고 두뇌발달 및 기억력 향상, 세포재생, 신경계 발달 등을 돕는다.

최근에는 오리의 해독기능도 주목받고 있다. ‘오리육의 섭취가 성인병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최근 건국대 동물유전공학연구실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오리고기 임상실험 결과 체내요소질소(BUN · Blood Urea Nitrogen)가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요소질소가 감소했다는 것은 체내에 존재하고 있는 질소 성분, 즉 독소들이 효과적으로 신장을 통해 배출됐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장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실 오리의 해독기능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향오

리 사육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유향은 인간을 비롯한 다른 동물에게는 치명적인 독이다. 그러나 오리는 맹독인 유향이 포함된 사료를 먹고도 죽지 않고 오히려 인체에 더욱 유익한 식품으로 변신하는 뛰어난 재주를 지녔다.

그래서 한의학자들은 유향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지만, 오리는 해독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동물이기 때문에 독에 해당하는 유향을 섭취하면서 오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독능력을 더욱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도움말 =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허강녕 연구사>

문화일보 이경택 기자 2013. 08. 22

